근기요산회, 광진구 아차산행

우중에 고구려정까지 올라

▲ 요산회원들이 우산을 받친 채 고구려정 공사장 아래 너럭바위에 올랐다.

▲ 중간 휴게소에서 쉬던 권익현 고문이 하산을 위해 일어서고 있다.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는 6월 셋째 토요일인 20일 월례산행으로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에 걸쳐 있는 아차산을 택하여 올랐다. 그러나 이날 우천 관계로 정상까지는 등반을 못하고 중턱의 팔각정까지 오르는 것으로 그쳤다.

집결지인 전철 5호선 아차산역 2번출구에서 오전 10시까지 모이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치지를 아니하여 참가자가 그리 많지는 못했다. 부근의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비를 피하다가 10시 20분쯤 되어 이동을 시작하여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을 한동안 올라가 영화사 입구를 지나 아차산 생태공원길을 따라 짙은 숲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렇게 1시간여를 등반하는 동안 노약자는 능선 밑의 휴게소 정자에서 쉬기도 하고 선두는 능선을 걸어 올라가 팔각정의 너른 마당바위에까지 이르렀다. 팔각정八角亭은 이름을 고구려정高句麗亭으로 바꾸고 새로이 중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아차산은 예전에 남쪽을 향해 불쑥 솟아올랐다 하여 남행산南行山이라고도 하였고 인근 사람들은 아끼산、에께산、에키산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기지京畿誌 양주楊州조에 보면 화량사(지금의 영회사)가 악계산에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아차산의 한자표기는 阿嵯山、峨嵯山、阿且山 등으로 혼용되는데 옛기록 삼국사기에는 아차阿且와 아단阿旦 두 가지가 나타나며 조선시대에 쓰인 고려사에 아차峨嵯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봉화산을 포함하여 망우리 공동묘지 지역과 용마봉 등 광범위한 산자락을 모두 아차산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태조의 휘가 단旦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피하면서 모양이 비슷한 차且자로 고쳐썼다고 한다. 그밖에 산 이름과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는 조선 명종 때 점을 잘치기로 유명한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잡아들여 혹세무민의 죄로 참수키로 하고 한편 그의 말대로 한 암쥐의 배를 갈라 보니 새끼가 들어있어서 ‘아차 하고 사형중지를 명하였으나 이미 홍계관이 참수되었고 이후 사형 장소의 위쪽 산을 아차산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에서 갈려 나온 광주산맥의 끝을 이룬다. 온달에 대한 전설이 많이 전해오는데 온달이 가지고 놀았다는 지름 3m짜리 공기돌바위와 온달샘 등이 있고 아차산성(사적 234)에서 고구려 장수 온달이 전사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고려 때는 광나루와 함께 많은 시인묵객이 찾았다. 은석사、범굴사、영화사 등 여러 사찰이 있었다. 조선 중기까지 일대가 목장으로만 개발되어 인가가 드물고 숲이 무성하였으며 호랑이와 늑대같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 임금의 사냥터로 이용되었다. 근대 이후 산기슭 중턱까지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고 뛰어난 조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서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서울특별시가 일대에 아차산공원、용마공원、용마돌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였고 산자락에 주택가와 쉐라톤워커힐 호텔이 들어서 있다.

문화재는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250여년동안 각축을 벌인 데서 아차산성、아차산봉수대지(서울시기념물 15)와 신라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영화사永華寺 등이 있다. 그 밖에 고구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보루유적이 있고 대성암 뒤에는 의상대사가 수련했던 곳으로 알려진 천연 암굴 외에 석곽분、다비터、강신샘 등의 유적이 많다. 구리시 아치울에서는 해마다 온달장군 추모제가 열린다.

팔각정 너럭바위에서 그만 등반길을 접고 오던 길로 하산하여 일행이 출발지 아차산역에 이르니 점심때가 조금 기운 시간이 되었다. 아차산역의 어린이대공원 후문 옆에 있는 ‘옛골토성’ 식당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하며 소줏잔을 나누었다. 권씨가 운영한다는 이 식당은 2층으로 규모가 작지 않았으며 훈제 오리와 돼지고기가 맛있었다. 이날의 점심식대는 굳이 만류함에도 권혁채權赫彩 부회장이 전액 부담하였다. 다음 7월의 월례산행은 도봉산 안골계곡으로 잡아 복달임 행사를 겸하기로 하였다.

<사진 權奇允 · 글 權炳逸>

▲ 옛골식당 2층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환담하고 있다.

인·물·動·靜

권두현權斗鉉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6월 16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권 신임 총장은 1948년 충남 보령에서 나서 1969년 경기도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남양주군수 · 성남 · 안양 · 부천부시장 · 안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거쳐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명예퇴직 후 2년간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대표를 역임하였다.

권오창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장은 최근 서울 전농동의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사립대 대학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1년 임기의 대학원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자동차 · 화재 · 건강등 어떤 보험이든 하나만 들으시면
安東權氏宗報 陵洞春秋 구독회비는 무료가 됩니다!

국내 모든 보험회사의 온갖 상품을
일가분의 선호에 맞춰 완벽히 설계해 드립니다!

안동권씨종보사 종합보험 대리점

대표권병일
서울종로구필운동288 - 1 02)723 - 4480 · 전송02)738 - 8935011-289-1747

우리는라이프사이클변화에따른체계적보상과자유로운선택의맞춤설계형보험으로일가고객모든분께만족을드립니다!
실속있는맞춤선택에서충분한보상까지어떤보험상품이각자에게필요할까,
섬세한컨설팅을통해고객별로최적의맞춤형보험을만들어드립니다!